

도시가스 없는 서해5도 난방비에 '시름'

주민 80% 실내 등유로 난방 기름 값 30% 가까이 올라

한파 예보 속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도시가스가 없는 서해5도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100여 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 7개 면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없다.

이로 인해 전체 주민 1만1300가구 가운데

80%에 가까운 9000가구가량은 비용 부담이 큰 등유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다.

실내 등유의 경우 열량 단위인 메가줄(MJ)당 단가가 26원가량으로 19원가량인 LPG 단가보다 20~30%나 비싸다.

옹진군은 비용이 저렴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이달 현재 LPG 사용 주민은 2365가구(20.9%)에 불과하다.

또 섬은 연료 운송 비용이 따로 드는 지역적 특성상 기름값이 육지보다 더 높은 편이다.

전날 기준 연평도 유일한 주유소의 실내 등유 판매 가격은 1L당 1650원으로 인천 평균보다 50원가량 높았다.

이 주유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통상 등유를 드림(200L) 단위로 사서 난방을 하는데 올해 한 드림당 가격은 33만원"이라며 "지난해 겨울 한 드림당 가격이 24만원 정도였으니 30% 가까이 값이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최경일 연평도 중부리 이장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적어도 한 달에 등유 한 드림

은 써야 하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섬 주민들 부담이 부쩍 커졌다"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어떻게든 운수를 안 쓰고 냉수로만 버티는 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섬 내 도시가스 시설 구축이지만 비용 문제와 주민 동의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옹진군은 영흥도와 백령도부터 도시가스 설치를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종환 기자

여성폭력 추방 주간 맞아 성평등 실천 다짐

인천시, 기념행사 개최 강연·거리 캠페인 실시

인천시는 25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같이하는 성평등 실천, 함께하는 안전한 인천'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맞춰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매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송윤옥 여성권익시설협의회장 및 경찰 관계자 등 각계 각층에서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 한층 빛나게 했다.



인천시는 25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같이하는 성평등 실천, 함께하는 안전한 인천'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

이날 기념행사는 국악 앙상블 '담은'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매진한 공로자 6명 표창 수여, 결의문과

슬로건 선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사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현직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시 여성권익시설협의회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여성권익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평시장역을 거쳐 부평 119안전센터까지 이동하며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그 밖에 여성폭력 추방 주간에 맞아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여성폭력예방홍보디자인 공모 선정 작품 전시회를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12작품을 전시하는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형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소외된 이웃 겨울나기 돕기 나서

'인천 김장나눔 대축제' 열려 김장김치 7천 포기 소외계층에

인천시가 26일 인천시청 애플 바닷분수광장에서 인천지역 기업 및 기관 자원봉사자 약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 인천 김장나눔대축제'를 열었다.

'인천 김장나눔대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인천지역 사회공헌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이마트 인천권역, 신한은행 인천본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인천지역 기업 및 기관의 자

원봉사자 2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 공직자들이 급여 우수리 사업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과 인천지역 기업과 단체 등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한껏 담긴 김장김치 약 7000 포기, 2만3285kg(10kg 1752상자, 3.5kg 1647상자)은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이형숙 부시장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상생활 속 나눔 문화 실천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26일 인천시청 애플 바닷분수광장에서 인천지역 기업 및 기관 자원봉사자 약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 인천 김장나눔대축제'를 열었다. (사진=인천시)

옹진군, 텃밭제거 작업 지속적 추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 쾌적한 도서산림 경관 제공

옹진군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도서산림 경관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텃밭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 내 덩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의 수목과 수풀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 수목의 생육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림연접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도로 사면 등 생활권 주

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업비 약 7억을 투입해 텃밭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덩굴이 생장하기 시작하는 지난 5월부터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을 중점지역으로 텃밭 제거작업을 시작하고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동일 대상지에 2회에 걸쳐 작업을 실시해 이달 초에 사업을 완료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숲의 경관을 저해하는 텃밭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동구에 여자중학교 2028년 설립

동구-시교육청 협약 체결 창영초 부지... 16개 학급

동구에 여자중학교가 2028년 설립될 전망이다.

동구는 인천시교육청과 '동구지역 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동구와 시 교육청이 여자중학교 설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내년 1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여중 설립을 위한 '인천 창영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다.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6년 9월에 36개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2028년 3월에는 인천 창영초 부지에 16개 학급 규모의 여자중학교가 설립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동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여중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구에 여중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박문여중·여고가 송도로 이전함에 따라 여학생이 배치될 학교 부족으로 인해 여중·여고 등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원도심 특성상 인구 고령화와 개발사업 지연 등에 따른 학생인구 감소로 그간 학교 설립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동구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여중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과 공감대를 형성, 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여중 설립을 강하게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20일 시 교육청 주관으로 창영초를 금송재개발구역으로 이전해 재배치한 뒤 기존 창영초를 리모델링해 여중으로 전환하는 학교설립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의원 영흥도 매립지 사업 재추진 발언

옹진군 영흥면장협의회 '반발' "사업 추진 시 주민 안전 우려"

옹진군 영흥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학 시의회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순학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를 자체매립지로 선정해주시기 바란다"며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사전과정은 주민협의, 보상, 설계 등 4년이상 소요 예상하는바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가 자체 매립지 선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영흥면 이장협의회는 성명서

를 통해 민선8기 환경부·서울시·경기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정책이 추진이라는 점과 2004년 영흥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18년째 분진가루로 인해 주민 건강악화 및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백지화된 영흥도 에코랜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영흥면 주민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도 주민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순학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중 '영흥도 에코랜드 자체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철회해 줄 것과 더 이상 청정 영흥면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영흥면 주민 대상으로 정중히 사과해 줄 것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안테나

강화군,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펼쳐



강화군은 24일 화도면 마니산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12월15일)을 맞아 가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화소방서·강화군산림조합·강화군시설관리공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등산객에게 산불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지남 기자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심폐소생술 교육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25일 상수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할로윈 인파 사고를 계기로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여 심정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에 직원들의 초기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코자 추진됐으며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협조로 상수도 공직자 160명에 대해 2회에 걸쳐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CPR) 및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해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운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안전보건 예방·대응 매뉴얼 운영, 주기적 안전교육 등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수도 공직자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미추홀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미추홀구는 24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문학경기장에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국훈련 현장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추홀구청·미추홀소방서·신세계야구단 3개 기관이 협업해 지진으로 인한 문학경기장 건물붕괴 및 가스누출 화재 발생을 가정한 복합재난사고 대응 현장훈련으로 진행했다. 훈련을 통해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해 명확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훈련으로 성공적인 훈련성과를 위해 훈련기관간 협약을 체결 후 훈련에 만전을 기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로 초동대처 및 응급복구 등의 절차를 숙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인천연구원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소는 다음달 1일 오후 '유럽발 에너지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제3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회차의 강사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이다. 석광훈 박사는 유럽발 천연가스 대란의 지정학적 배경,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추세, 기로에 선 국내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소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은 초유의 천연가스 공급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의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지속가능한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시와 국가의 기후환경 정책, 관련 전문정보를 시민과 공유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인천기후환경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안종삼 기자